

주가급락 국면에 주식형 펀드를 산 이유

강창희 소장의 '투자 사랑방'



지난 8월초 주가가 급락을 하여 주식시장에 공포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을 무렵 증권시장에 출입하는 한 언론인을 만나, 그 전날, 필자가 주식형펀드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그 말을 들은 언론인이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필자에게 물었다.

"남들은 다 팔고 떠나는데 주식형 펀드를 추가로 더 샀다고요?, 그럼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야 알 수 없지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어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질지도... 주가가 바닥 수준에 왔다는 확신이 들어서 아니고, 주가급락으로 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 더 사들인 것 뿐입니다."

이것이 필자의 대답이었다.

> 소액투자는 적립식, 목돈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필자는 9.11테러 사건으로 인한 주가급락이나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주가 급락사태와 같이 시장전체가 급락을 하는, 이른바, 마켓리스크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예측 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액투자일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매입시점을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이 되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투자를 한다.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이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급락국면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바로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매월 소득에서 쓰고 남은 자금은 주식형펀드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 삼십수년동안 모은 목돈은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CMA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가? 금융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짜야 한다. 형편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나이, 재산상태, 직업의 안정도, 가족상황,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투자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세대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노년세대보다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와 같은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같은 나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다.

또 투자 성향이 적극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보다,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많지 않은 투자자보다, 자금을 써야 할 때까지의 기간이 긴 투자자는 짧은 투자자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최근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먼저 투자자의 형편을 체크하는 설문지를 준다. 앞에 예를 든 요소들을 반영시킨 설문지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설문지 작성을 귀찮아 하지 말고 성의껏 답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올바른 조언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느 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줄 것이다.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비율에 동의한다면, 투자자는 그 비율대로 해당 펀드를 매입한다.

이런 절차가 귀찮다고 여겨지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형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요소인, 나이만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도 된다. 즉,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비율 만큼을 공격적인 투자상품에, 나머지 비율은 안정적인 상품에 넣는 것이다.

< 모델 포트폴리오 사례 >

- 원금중시형: 주식형 10%, 채권형 40%, CMA 또는 예금 50%
- 이자배당중시형: 주식형 25%, 채권형 50%, CMA 또는 예금 25%
- 이자배당 및 시세차익 절충형: 주식형 40%, 채권형 50%, CMA 또는 예금 10%
- 시세차익중시형: 주식형 65%, 채권형 30%, CMA 또는 예금 5%
- 시세차익추구형: 주식형 75%, 채권형 20%, CMA 또는 예금 5%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비율대로 해당펀드를 매입하기만 하면 투자는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한다.

>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

점검하는 기간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투자자 자신이 정하면 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 자신은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50대 투자자가 주식형펀드 50%, 채권형펀드 40%, CMA 1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한 후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기로 했다고 하자.

6개월이 지난 뒤에 펀드를 매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가서 그 동안에 포트폴리오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65%로 늘어났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형펀드나 CMA는 주식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식형펀드의 늘어난 비중 15%만큼을 팔아서 채권형펀드와 CMA의 줄어든 비중을 메운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원래의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식형펀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식형펀드의 비중은 50%인데 65%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의 비율로 돌려놓기 위해 15%만큼을 줄이는 것이다.

또 6개월이 지나서 계산을 해보니, 이번에는 주가하락으로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40% 줄어 있을 수가 있다. 반면에 채권형펀드와 CMA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형과 CMA의 늘어난 비중 만큼을 팔아서 주식형펀드로 옮긴다.

> 형편이 바뀌면 포트폴리오 기준비율을 변경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재조정해나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기준이 되는 비율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그 사이에 나이, 재산상태, 가족상황, 투자기간과 같은 투자자의 형편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 상속으로 생각지 않았던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이 바뀌면서 월급이 늘거나 줄어 들 수도 있다. 집을 살 계획이 생기거나 자녀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질 수도 있다.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투자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커다란 변화이다. 가령 50대였던 투자자가 60세가 돼 정년퇴직을 했다면 주식형펀드 비중 50%는 60대에겐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가 된다. 따라서 60대의 퇴직자에게 맞게 좀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는 40%로 줄이고 채권형펀드와 CMA 비중을 60%로 늘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것이다.

< 기준비율 변경사례 >



선진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5년, 10년 장기투자를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단기 시황 전망을 근거로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